

# Morning Meeting Brief

## Strategy

### 전화위복(轉禍爲福), 새로운 상승추세 전개 예상 (Feat. 탄핵 가결 이후 증시 전망)

- 12월 연말 랠리, 크리스마스 랠리, 불확실성 완화 통한 새로운 상승추세 예상
- 美 금리인하 사이클 재확인, 中 경기 회복 가시화, 수급 모멘텀 = KOSPI 상승동력
- 1차 목표 2,580P / 실적대비 저평가주 & 단기 낙폭과대 업종 주목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 ESG & 정유화학

### 기후금융과 잠재적 기회

- 산업정책을 동반한 ESG, “기후금융”
- 420조원 규모의 기후금융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중심으로 자금 집행
- 트럼프 당선으로 불거진 친환경 산업 리스크, 확실한 선택지가 될 수 있는 DAC

이경연. kyungyeon.lee@daishin.com, 위정원. jungwon.weee@daishin.com

## 전화위복(轉禍爲福).

### 새로운 상승추세 전개 예상

### (Feat. 탄핵 가결 이후 증시 전망)

- 12월 연말 랠리, 크리스마스 랠리, 불확실성 완화 통한 새로운 상승추세 예상
- 美 금리인하 사이클 재확인, 中 경기 회복 가시화, 수급 모멘텀 = KOSPI 상승동력
- 1차 목표 2,580P / 실적대비 저평가주 & 단기 낙폭과대 업종 주목

Issue :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 새로운 변화 기대, 12월 수급 계절성 + 연금금 순매수, 중국 경제지표 부진과 경제공작회의 결과에 대한 실망, ECB 비둘기파적인 스탠스 재확인, 물가 반등과 12월 FOMC 경계심

14일 대통령 탄핵안 본회의에서 가결. 2016년 탄핵안 가결 이후 외국인 순매수, KOSPI 안정성 강화, 상승세 전개. 향후 KOSPI 정상화 국면 전개 예상

12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는 양상. 전혀 예상치 못한 정치적 리스크까지 선반영한 KOSPI 시장에 대한 인식 변화 가능성. 여기에 12월 수급 계절성과 연금금 순매수가 가세하면서 KOSPI 연말 랠리 기대 가능

중국 수입 마이너스 폭 확대는 재고를 소진하는 행보로 해석 가능. 중국 경제공작회의 결과 공개 이후 시장 실망감 유입은 높았던 기대와 괴리를 확인하는 과정이며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는 충분히 강하다고 판단

ECB는 주요 정책금리를 25bp 인하. 2% 기준금리에 빠르게 도달하는 것은 물론, 중립금리 이하로 내려 경기 사이클 개선에 노력할 전망

PPI 컨센서스 상회하며 물가 반등, 미국채 입찰 부진 등의 여파로 채권금리 및 달러화 반등하며 12월 FOMC 경계심리 반영

Inflection Point : 2004.7/2023.11 이후 KOSPI 되돌아 볼 필요성, 12월 FOMC 점도표 변화 체크 / 12월 BOJ의 금융시장 영향력은 제한적, 중국 실물지표 개선 지속, KOSPI 12월 수급 계절성 강화

최근 시장 흐름은 23년 10월말과 유사. 당시 덜 매파적인 11월 FOMC 결과와 한국 수출 개선 계기로 낙폭과대, 저평가 인식 강화. 이후 채권금리 하락, 연말 외국인 선물/프로그램 매수 등 호재 가세로 KOSPI 상승. 또한 6개월만에 월간 수익률 플러스 기록하며 카드사태 이슈로 약했던 2004년 7월과 유사한 흐름 예상

12월 금리인하 기정사실화, 관건은 점도표 변화. 1) 컨센서스대로 발표될 경우 단기 변동성 제어 2) 24년 점도표가 2회로 후퇴, 26년 기준금리 상향조정될 경우 단기 충격 불가피 3) 최종 금리 2.875%로 유지될 경우 단기 안도감 유입 예상 4) 9월 FOMC 점도표가 유지될 경우 서프라이즈 동력 될 전망 / 일본 정부의 물가 안정의지는 높지만 BOJ 금리인상 서두르지 않겠다는 스탠스 강화. 만일 금리인상 단행 통한 엔화 강세 및 2차 엔캐리 청산 매물로 인한 변동성 확대 일어날 경우 비중확대 기회

중국 실물지표 통해 2개월 연속 소비모멘텀 개선 확인 및 25년 4월까지 견고한 개선 예상. 23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부양정책, 재정정책, 금융완화 정책들이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는 양상. 중국 증시 상승추세 및 위안화 하향안정 국면 진입 예상

연말로 갈수록 외국인 선물 매수, 기관 프로그램 매수 유입 강도 강화.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시 12월 계절성 강화는 물론, 현물 매수 전환 가능성 확대

Trading 전략: 실적대비 저평가주 & 낙폭과대 업종인 반도체, 자동차, 2차전자, 기계, 건설, 상사/자본재 등 주목

KOSPI 2,500선 이하는 변동성을 활용한 비중확대 전략 유효. KOSPI 2,400선 이탈은 단기 UnderShooting으로 판단. 비중확대 전략 강화

시장 안정성이 높아질 경우 실적대비 저평가 업종들의 반등시도 뚜렷해질 것. 현재 강한 업종/종목보다 가격/밸류에이션 매력은 높은 저평가 업종 관심 확대 필요. 다수의 업종들이 단기, 중기 측면에서 중요 지지권, 변곡점 진입. 단기 트레이딩은 물론, 중기 전략 측면에서 매집 가능

# ESG, 정유화학

Sustainable Investing Analyst 이경연  
kyungyeon.lee@daishin.com

정유/화학 Analyst 위정원  
jungwon..weee@daishin.com

## 기후금융과 잠재적 기회

- 산업정책을 동반한 ESG, “기후금융”
- 420조원 규모의 기후금융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중심으로 자금 집행
- 트럼프 당선으로 불거진 친환경 산업 리스크, 확실한 선택지가 될 수 있는 DAC

### 산업정책을 동반한 ESG, “기후금융”

기후금융은 혁신적인 기술과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본시장의 미래 성장동력을 제공한다. 전기차 생산,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수소 에너지 기술 등은 기후금융의 지원을 통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금융은 기업의 기술 개발과 산업 성장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탄소배출권과 같은 기후금융 도구는 기업의 재무안정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다.

### 420조원 규모의 기후금융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중심으로 자금 집행

한국의 420조원 규모의 기후금융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개선을 중심으로 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그런데 자본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린 워싱(Green washing) 문제를 방지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수적이다. 유럽의 택소노미, CSRD, SFDR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선례로, 금융상품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여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기후금융은 단순한 자금 조달 수단을 넘어 산업과 자본시장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 트럼프 리스크를 빚겨가는 DAC

친화석연료, 반청정 에너지 기조의 트럼프 후보 당선 이후 국내 ESG 기업(전기차, 태양광)의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탄소포집과 관련된 친환경 산업의 성장성은 여전하다고 판단한다. 트럼프의 주요 지지 기반인 북미 에너지 기업들에게 탄소포집의 당위성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해당 관점에서 유니드(014830)의 성장 스토리 역시 유효하다.

동사의 주력 제품은 수산화칼륨(KOH)으로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한다. 수산화칼륨은 강한 염기성 물질로 산성을 띤 이산화탄소(CO<sub>2</sub>)를 만나면 물과 염(salt)을 생산하는데, 이 반응을 원리로 대기중의 CO<sub>2</sub>를 포착한다. 현재 수산화칼륨을 사용하는 습식(Liquid Solvent) 방식은 전체 탄소포집(DAC) 시장의 75%를 차지하는 주류 기술이기 때문에, 전 세계 점유율 33%(아시아 시장 70%)를 차지하는 동사의 성장 역시 궤를 같이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중단기적 관점에서 25년 중국 내 PVC 생산 공정의 변화로 만년 적자를 보였던 염소(Chlorine) 시장 역시 수요 증가 개연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따라서 25년도 동사의 예상 ROE 7.4%로 국내 화학 업종 내 차별화된 수익성이 예상된다. 이는 점에서 Bottom-fishing 관점의 접근을 권고한다.

####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